

유아교육비 1학기 1백만원...정부는 '뒷짐'

유치원교육비—이대로 좋은가

한학기 교육비 1백만원대

최근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의 교육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93학년도 신입 원아들의 모집을 마감한 서울시내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입학금과 함께 30만~50만원의 3개월분 원비 선납을 요구해 학부모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10만원에 한달 원비 9만2천원씩 4개월분 총 46만8천원을 일시불로 선납해야 하는데다 월 간식비 1만2천원, 버스통학비 1만3천원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한학기당 교육비 부담이 1백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한달 원비가 9만2천원이면 보통수준”이라며 “한달에 13만원 정도인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O유치원은 입학금 12만원에 한달 원비 10만원씩 총 42만원을 1기분으로 받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의 7유치원은 입학금 8만원에 한달 원비가 8만5천원, 그외에 버스통학비 3만5천원, 재료비 월 1만5천원, 견학활동비 월 1만5천원씩을 별도로 받고 있다. 거기다 겨울철 난방비, 재물잔치 찬조금, 원아 생일잔치 비용 등 수시로 받아가는 잡비도 만만치 않으며 거기다 스승의 날, 추석, 연말 등이면 선물부담도 안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에 따르면 “미술대회를 열어 상품을 주고는 3만~5만원씩 거둬가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며 유치원교육비의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입학기때 4세된 첫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유치원을 찾았던 김모씨는 “3개월치 등록금 40만원에 차량이용비, 교재비 등을 합해 모두 60만원을 내라고 해 등록을 포기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바 서미르씨는 가

엄두도 못낼 액수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한 학부모는 “네살된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한달에 28만원 정도가 들지만 충분히 그렇게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이상의 애기를 회피하기도 했다.

하기야 이쯤 되니까 강남지역의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는 사태를 빚는 것이 아닐까. 유치원도 일류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취학전 유아기에 대부분 인격형성이 끝난다고 말한다. 발달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 지능, 인격, 감정형성 등의 80%가 6세 이전에 형성된다. 또 인간은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에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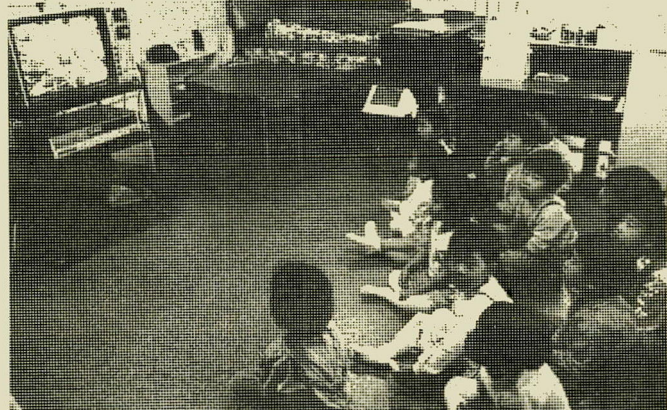
개인의 경제 능력에 맡겨져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유아기의 교육이 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겨져 계층간에 커다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아교육은 ‘교육행정의 사각지

에 학습을 진행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지서상으론 하지않어

현재 서울시내에는 국공립유치원인 공립유치원이 29개, 사립유치원이 1천3백29개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자율이 기본원칙”이라며 “작년엔 8%, 올해는 6% 등으로 정부의 물가시책에 따라 조정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물가인상을 이내에서 납입금을 책정하라는 권고만 반복하는 게 고작인 실정이



최근 유치원 교육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유아교육도 공공교육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고 있는 꼴인 셈이다.

작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취학전 아동의 교육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용으로 1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치원과 함께 음악·속셈 등 다른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67%였고 이들 학원의 수강료는 월 평균 5만3천원5백원으로 나타나 취학전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 68.2%의 가정에서는 유아교육용 학습지도 구독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월 평균 1만1천원으로 조사됐었다.

10여년 전만해도 ‘있는 집 아이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여겨졌던 유치원이 요즘은

육의 질을 꼬집었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지난 80년 9백여개에 불과하던 유치원수가 현재는 1만1천여개로 10배이상 늘었고 취원율도 5살 어린이를 기준으로 80년 7.3%에서 52.4%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유아교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곧 유아교육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전체 유치원의 취원율이 우리나라가 46.9%로 영국 1백%, 북한 1백%, 미국 98%, 일본 90%보다 훨씬 뒤지고 있음을 볼 때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에 비해 우리의 정책은 다분히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의무 공교육화돼야

부유층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에 편승해 동물사육장까지 갖춘 초호화판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유휴교실이 나 창고를 개조해 교실로 사용, ‘여름엔 한증막 겨울엔 얼음집’을 면치 못하는 공립병설유치원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의 현주소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어린시절 어떤 환경에서 어떤

30~50만원의 3개월분 원비 선납 관행도 89년 이후 공립유치원 신설 거의 없어

대’라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유아교육은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정식 기간학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학교의 교육내용과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교조 관계자는 말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글 받아쓰기시험을 치러 꼴찌를 하게 된 자녀를 허둥지둥 집에서 글씨공부를 가르쳐야 했던 한 학부모가 얼마전 모 신문에 투고했던 내용은 그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에서는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92년 서울의 전체 사립유치원의 평균 교육비는 월 4만8천60원, 공립은 2만3천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액수는 사립의 경우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때그때 수시로 내는 잡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고지서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 그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70%가 한두 학급으로 이뤄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공공교육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우리의 유아교육정책은 사립에 모든

반드시 필수과정인 것처럼 돼버렸다.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도 대학 뺀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양적 팽창, 내용은 제자리

‘내아이만은 좀 더 특별했으면’하는 부모들의 허영심을 비집고 유아교육이 알파한 상술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비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느냐도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초봉 27만원에 경력 3년이 지나 38~40만원을 받다가 전업을 했다’는 한 전직유치원교사는 “저임금에 보너스나 퇴직금도 거의 없는 지금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유치원교

육을 받느냐가 한 개인의 삶의 방향과 테두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듯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유아기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물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나라들은 이미 유아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우리의 유아교육도 무상의무 공공교육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간발달의 기본틀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교육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혜정기자